

# 아이디어 육성을 위한 아이디어 사업화 정보시스템 모델 설계

신동구\* · 신주연\*\*

## I. 서론

박근혜 정부는 핵심 국정철학으로 창조경제 시대로의 진입을,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 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였다. 창조경제에서는 개방된 장(場)에서 새로운 비즈니스와 서비스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개방형 혁신과 공유와 협업을 통한 집단지성의 활용이 중요하다. 정부는 과학기술분야를 넘어서서 창조경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려면 국민 아이디어가 마음껏 사업화될 수 있는 창조 생태계가 필요함을 느끼고, 그 일환으로 창조경제타운 서비스 구축을 기획하였다.[1]

창조경제타운 서비스는 아이디어를 수집하여 육성하고, 제안자 역량을 향상시키며, 사업화 연계를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그러나 서비스 오픈 이후 아이디어 육성 및 멘티 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 멘토링을 실시하고, 아이디어를 활용한 창업 성공을 위하여 각 부처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등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아이디어 육성을 위한 프로세스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정보시스템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아이디어 사업화 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 아이디어를 육성하기 위하여 아이디어, 사업화 및 창업 서비스를 제공 중인 사이트를 조사하고,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프로세스를 분석하여 아이디어 사업화 정보시스템 개선모델을 제안하였다.

## II. 본론

### 1. 창조경제타운 추진배경

글로벌 경제위기와 함께 국내기업 경쟁력 약화로 인한 장기불황 진입가능성 증대로 범정부차원의 잠재성장률 회복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주요 의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성장단계별 지원 체계 마련을 준비중이다. 특히 자본 등 요소 투입, 저임금과 원가절감 등의 비용 줄이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위기의식이 창조경제로의 이행을 촉발하고 있다. UNCTAD 'Creative Economy Report 2010'에서는 예술·인문·기술의 교차점에서 탄생하는 상상력과 창의적아이디어를 산업화한 창조기업들이 세계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급성장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한국경제의 힘의 원천은 대기업이었으나 이제는 'Startup Culture·창업문화'가 주역이 되어야 하며 관치금융으로 성장한 재벌이 한계를 맞은 상황에서 강력한 브랜드를 가진 중소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과학기술혁신시스템은 공공부문 R&D 중심구조로 인한 민간의 창조·혁신 경쟁력이 미흡하고 주요 연구개발 및 지식재산 서비스 부문 역시 정부기관에 의해 주도되어 민간시장의 자생적 발전 인프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적으로 한국의 창조경제역량 수준은 G7에 훨씬 미치지 못하며, OECD 국가 중에서도 중하위권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정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지식정보가 공급자 위주, 산발적으

\* 신동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창조경제지원사업단 선임연구원, 02-3299-6280, lovesin@kisti.re.kr

\*\* 신주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창조경제지원사업단 선임연구원, 02-3299-6165, jyshin0417@kisti.re.kr (교신저자)

로 제공되어 국민의 참여와 관심 저조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기회가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범 정부 차원에서는 국민-산학연-정부가 참여하여 국민의 상상력·아이디어에서 사업화 창업, 마케팅에 이르는 전주기적 생태계를 지원하는 종합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창 조경제문화” 창달 선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지원 측면에서 아이디어 발굴·공유 확산, 기술교류, 사업화, 민간-정부 간 소통 등의 종합적 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창의적 문화가 확산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세부적으로는 정부간, 정부와 국민간 협력·소통하는 오픈 체계의 구축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창의성의 발현과 사회적 요구를 상시 반영·해결이 필요하다. 또한 아이디어 발굴·공유 확산, 기술교류, 사업화 및 국민-정부 간 소통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창의적 문화가 확산되는 창조경제 소통의 문으로서 창조경제 종합지원서비스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성과측면에서 국민이 창조경제에 대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창의적 아이디어에 과학기술과 ICT를 융합하여 성공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도출하여 확산이 필요하다.[1]

## 2. 아이디어 사업화 서비스 동향

아이디어, 사업화 및 창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 중인 약 420개의 사이트를 조사하였으며, 제공하는 서비스를 16개 항목\*으로 분류하였으며, 16개 항목은 다시 서비스제공, 콘텐츠제공, 교육제공으로 분류하였다.

그림 1과 같이 16개 제공서비스 중 기술이전/지원, 창업관련 정보 제공, 경영지원, 경영교육지원, 자금 지원/정보 제공, 창업 판로 확보 지원, 행정서비스 지원 등 7개 지원 서비스는 약 100개 이상의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창업 관련 절차 지원, 창업 관련 문제 해결 지원, 기술자/창업자간의 모임 등 창업 관련 서비스는 약 20~50개 사이트에 제공하고 있었으며, 특히 아이디어 창출/공유, 아이디어 상품, 아이디어 공모전 등 아이디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약 5개 미만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키워나가는 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아이디어 단계, 사업화 준비단계, 사업화 추진단계, 창업단계 등 4단계로 서비스 하고 있음이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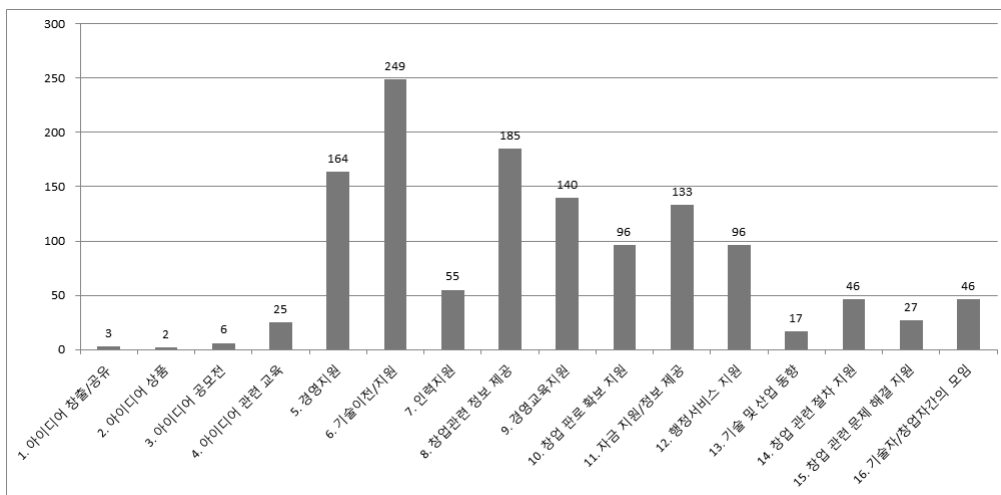


그림 1 아이디어 사업화 서비스 현황(I)

\* 아이디어 창출/공유, 아이디어 상품, 아이디어 공모전, 아이디어 관련 교육, 경영지원, 기술이전/지원, 인력 지원, 창업관련 정보 제공, 경영교육지원, 창업 판로 확보 지원, 자금 지원/정보 제공, 행정서비스 지원, 기술 및 산업 동향, 창업 관련 절차 지원, 창업 관련 문제 해결 지원, 기술자/창업자간의 모임.

그림 2는 아이디어, 사업화, 창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1,060건, 콘텐츠는 205건, 교육은 25건으로 아이디어 사업화 서비스에 비해 콘텐츠와 교육 서비스는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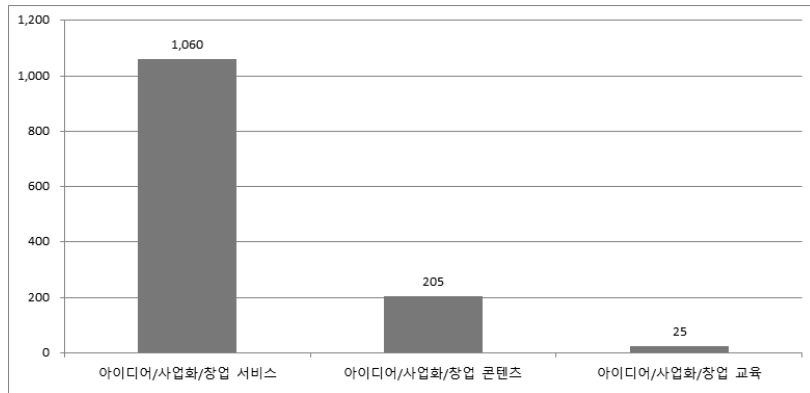


그림 2 아이디어 사업화 서비스 현황(II)

### 3. 아이디어 사업화 프로세스 모델 설계

약 420개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창업 및 사업화 지원 서비스를 제공 중인 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아이디어 사업화 단계를 아이디어 단계, 사업화 준비단계, 사업화 추진단계, 창업단계 등 4단계로 구분하였으며 그림과 같은 아이디어 사업화 프로세스 모델을 설계하였다. 특히 창조경제타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초기 아이디어를 사업화 준비단계에서 활용가능한 아이디어로 키우기 위한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모델을 설계하였다.

#### 1) 프로세스 모델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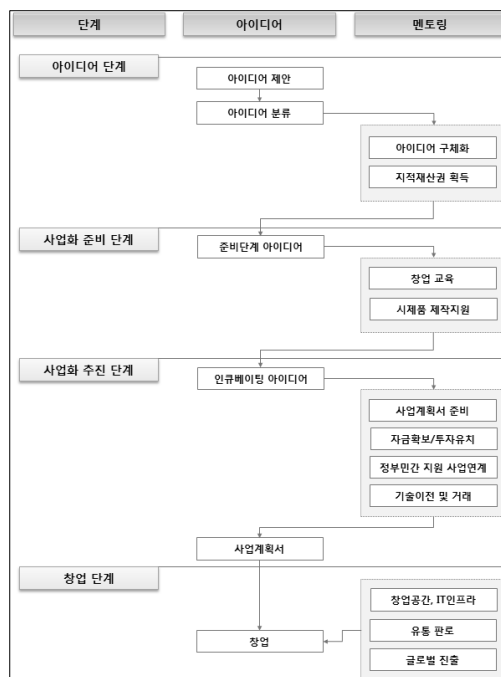


그림 3 아이디어 사업화 프로세스

아이디어 사업화 프로세스는 아이디어 단계, 사업화 준비단계, 사업화 추진단계, 창업단계 등 4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아이디어 단계는 창업이나 사업화를 처음 접하는 일반인이 문제를 인식하고, 인식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간단하게 고민하는 수준으로 아이디어제목, 문제점, 해결방안 등 기초적인 내용을 등록하고, 이러한 초기 단계의 아이디어를 구체화를 위하여 멘토링을 실시하고, 아이디어 도용 방지를 위하여 아이디어 원본증명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지적재산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화 준비단계는 구체화된 아이디어를 멘토링 및 창업교육을 통해 형태, 핵심기술, 제안목표 등의 내용을 등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초기 아이디어를 사업화 준비단계인 인큐베이팅 아이디어로 육성시키고, 이렇게 구체화된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화 추진단계는 사업계획서 준비, 자금확보/투자유치, 정부민간 지원사업 연계, 기술이전 및 거래 등의 멘토링을 통해 시장조사와 분석, 예상수익, 개발계획, 재무 및 경영 계획 등의 내용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창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준다.

창업단계는 창업공간 및 IT 인프라 지원, 유통판로, 글로벌 진출 등의 멘토링을 수행하여 창업 이후의 성과에 대한 멘토링도 제공한다.

그림 3과 같이 창조경제타운에서는 초기 단계의 아이디어를 창업 및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육성하고, 멘티의 창업 및 사업화 역량을 키워주며, 창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수 있도록 멘토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아이디어 사업화 프로세스를 설계하였다.

#### 4.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 사업화 정보시스템 모델

##### 1)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 사업화 정보시스템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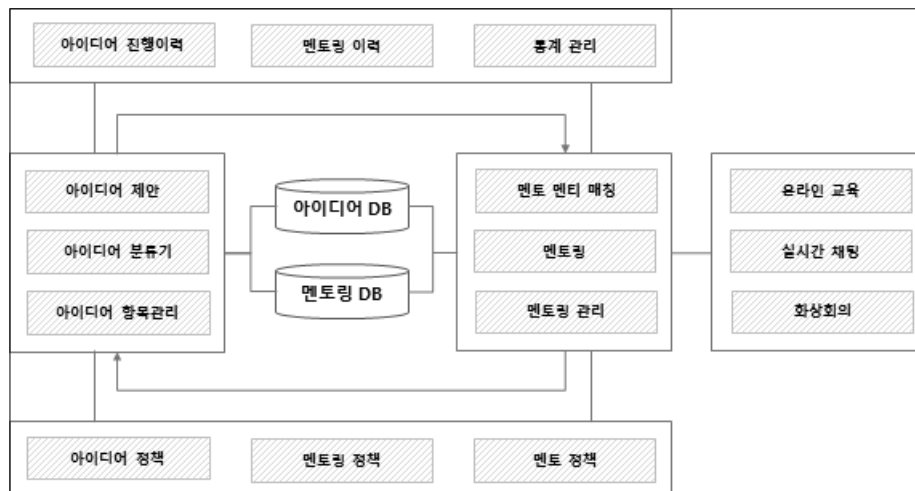


그림 4 아이디어 사업화 정보시스템 개선 모델

아이디어 사업화 프로세스 기반의 아이디어 멘토링 및 사업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림 4와 같이 아이디어 관리, 멘토링 관리, 멘토링 지원, 정책관리, 이력관리 등의 5개 모듈로 정보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아이디어 관리 모듈은 아이디어를 접수 및 분류하고, 멘토링을 통해서 아이디어가 초기아이디어, 준비단계 아이디어, 인큐베이팅 아이디어, 사업계획서 단계까지 육성되기 위하여 각 단계별 아이디어 등록 현황을 관리하는 모듈이다.

멘토링 관리 모듈은 아이디어 제안된 이후 멘토링 요청에 따라 멘토와 멘티를 매칭하고,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 및 사업화 할 수 있도록 멘토링을 제공하며, 각 단계별 제공 멘토링을 현황을 관리하는 모듈이다.

멘토링 지원 모듈은 멘토링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온라인 멘토링, 실시간 채팅, 화상회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듈이다.

정책 관리 모듈은 아이디어가 단계별로 육성되지 않는 경우, 멘토 멘티가 오랜 기간 매칭이 되지 않는 경우, 멘토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 아이디어 사업화 프로세스 전반적으로 진행이 원활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설정하고, 반영하며, 관리하는 모듈이다.

이력 관리 모듈은 아이디어, 멘토링 등의 아이디어 사업화 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현황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고, 아이디어나 멘토링 등의 단계별 현황통계를 관리하는 모듈이다.

### III.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이디어 사업화 서비스를 제공 중인 약 420개 사이트를 조사하여 아이디어, 창업 및 사업화 서비스 현황을 조사하였고, 이렇게 조사된 서비스 현황을 활용하여 아이디어 단계, 사업화 준비단계, 사업화 추진단계, 창업단계 등 4단계의 아이디어 사업화 프로세스를 설계하였다. 또한 아이디어 관리, 멘토링 관리, 멘토링 지원, 정책관리, 이력관리 등의 5개 모듈로 정보시스템을 제안하였다.

향후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창조경제타운과 지역을 거점으로 오프라인으로 아이디어를 육성하고 멘토링을 지원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연계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 [1] 한국기술혁신학회 (2014), “아이디어 육성을 위한 아이디어 사업화 정보시스템 모델 설계”.
- [2] UNCTAD (2010), Creative Economy Report 2010.